봉은사, 호국불교 전통계승 나선다

3월 6일 신년기자회견, 신도 친절캠페인 등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 봉은사가 호국불교를 주제로한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도 친철 캠페인 등 신도편의 증대 사업과 중창불사 3단계 등 사찰 위상 확대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3월 6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진각 스님, 기획국장 지오 스님, 김상훈 신도회장, 장영욱 종무실장, 김영환 총무팀장, 이상혁 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봉은사는 △친절, 화합, 혁신 도약 △가람정비 중창불사 추진 △호국불교도량 위상 강화 △신도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최적화 △포교, 문화, 사업에 중점 △지역소통의 중심 발돋움 등을 기치로 내 걸었다.

호국불교, 역사 스토리텔링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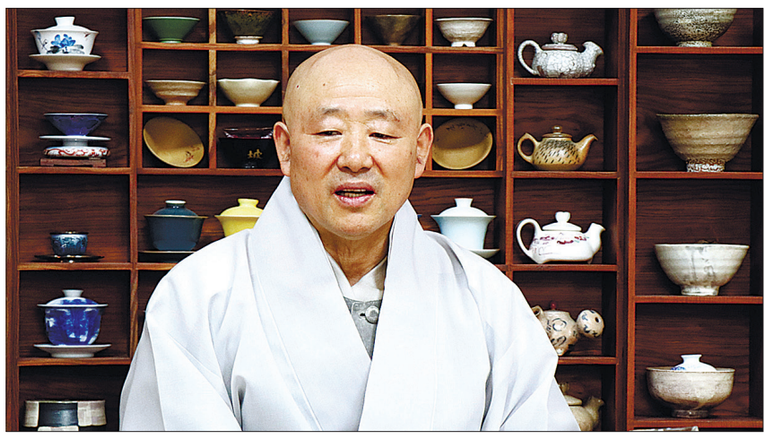
가장 먼저 호국불교 도량으로서의 봉은사 위상이 강화된다. 봉은사는 최근 백곡처능선사의 '간폐석교소' 연구와 세미나 등을 연 바 있다. 올해는 보우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백곡처능선사, 영기율사, 청호 스님 등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밖에 문정왕후, 추사 김정희 등 봉은사와 연관된 인물, 역사 스토리텔링도 함께 진행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중흥과 호국불교 정신이 있다. 가령 매화당의 경우 서산대사의 매화꽃 일화와 맞닿아 있다. 봉은사 곳곳에는 불교의 맥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해 오신 스님들을 비롯한 인물이 많다.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봉은사 인물사전 형태의 책자 발간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욱 종무실장은 "중앙승가대, 불교학술원 등과 협력해 봉은사가 소화하기 힘든 연구사업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 계승, 신도편의 불사 박차

이와 함께 다양한 중창불사도 이뤄진다. 봉은사는 현재 3단계 중창불사가 진행중이다. 신도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진다.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 지정 후 40여 년간 법적 규제로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웠으나 2009년 역사공원 변경과 2013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봉은사는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 1단계로 2017년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한데 이어 2018년 2단계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3관과 범종루 개축 등을 진행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2019년 종무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으로 매화당 신축불사, 응향각 개축불사, 운하당 요사채 신축불사, 화장실 개축, 석축불사 등이 진행된다. 또 오봉산 석굴암에 위치한 일주문 환수불사가 진행되며 3단계 핵심사업으로 대법륜전 건립도 추진된다.

이중 봉은사 일주문 환수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수 시 일주문은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된다. 현재 오봉산 석굴암 측과 협의 중이다. 대법륜전은 2020년 부처님오신날 이전 착공을 목표로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축전도 열린다. 원명 스님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전통공연,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봉은사 하면 강남 도심에서 전통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반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조직 확대, 친절캠페인 진행

신도조직화 또한 박차를 가해 108거사림회가 부처님오신날 무렵 발족된다. 108거사림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학자, 법조인, 의료인 등의 전문직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밖에 봉은사 남성합창단이 창단된다. 봉은사는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청년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연화합창단 등 연령별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창단되는 남성합창단은 45~65세 사이의 남성불자로 구성되며 현재 40여 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신도들을 배가시키기 위한 친절캠페인도 진행된다. 친절캠페인은 사중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신도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매월 초하루에는 전 대중이 신도를 맞이하는 행사다.

원명 스님은 "법정 스님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인은 '친절' 이라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친절이 가장 큰 포교"라며 "신도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미래 포교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특히 봉은사는 신도들의 보시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무국에 사업팀을 신설했으며,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차문화체험관인 연회다원을 세계 명차를 만드는 명소로 만들고, 맛 본 차를 바로 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응향각 불사가 완료되면 봉은사만의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매장도 운영된다.

불교용품점에는 특화상품 개발, 판매하고, 법당의 생화공양, 지화공양 문화 조성 및 꽃 배달 서비스도 진행된다.

또 봉은사 특생의 빵과 과자 개발과 불교용품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예산 절감과 타 사찰 물품 공급의 중계자 역할도 진행한다.

원명 스님은 "불자 감소와 사찰의 미래를 위해 신도의 기도, 보시금 의존을 낮추는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도회장도 "사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행동치료 배우고 불안 날려볼까

목우선원, 총 11회 강연회

내 안의 불안과 걱정을 치유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오는 3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목우선원 강의실에서 명상상담 아카데미 월례강연회를 개최한다.

'불안과 걱정, 수용하고 통찰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월 2회, 목요일 오후 7시와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총 11회가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을 비롯해 총지사 주지 동진 스님, 상담심리학 박사 용진 스님, 김광호 조우 코칭상담센터장, 김창중 동양대 교수, 윤미숙 한국요가문화협회 이사 등 명상상담 전문가들이 나선다.

강연회 참가 신청은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홈페이지(www.medicoun.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강연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월례강연회를 이수하면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감정코칭전문가 자격시간과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자격과정 15시간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오는 3월 3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목우선원 2층서 '수용전념치료에서의 가치작업'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2236-5306

신성민 기자

불교 · 가톨릭 탈원전 공동 세미나 '눈길'

생명탈핵실크로드 등 3월 20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

불교계와 가톨릭계 인사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생명탈핵실크로드(이하 생명로드) · 후쿠시마원전오염수국제소송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를 맞아 탈원전 정책 세미나를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 개최한다.

'국립 탈원전 안전 연구소(가칭)'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환경위원 종걸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 석일웅 수사 등 불교 및 가톨릭 인사들이 생명로드 100인 위원 자격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생명로드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를 단장으로 달라이라마 등 세계 각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탈원전을 위한 세계 생명헌장을 전달하는 순례를 진행해오고 있다. 100인 위원은 탈원전을 위해 범종교계가 협력하는 취지의 생명로드에 100만원을 기부한 동참자들이다.

발제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의 '원전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의 '유럽 각국의 원전 상호감시', 이원영 교수의 '국립탈원전안전연구소 설립 필요성과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이 교수는 "추후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도움으로 세계적인 원전 안전감시 조직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행사를 추진 중"이라면서 "세미나 이후 원전 실무자,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결의안을 청와대 측에 직접 공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얘들아, 유네스코 山寺 탐방해볼까?"

동행,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참가 모집

중학생 '멘티' · 성인 '멘토'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불교계가 새로 등재된 한국 사찰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학생 및 성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이하 동행)이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새롭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지 승원 사찰이 탐방지에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봉정사, 마곡사, 통도사, 대흥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선암사 등을 비롯해 종묘,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수원 화성, 해인사 대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를 1일 또는 1박 2일 탐방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연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월 1회 주말마다 여행을 떠난다.


2017년 남한산성 수어장대를 탐방한 참가자들. 사진제공=동행

참가자는 중학생 멘티와 이들을 인솔할 성인 멘토로 나뉜다. 멘티는 서울경기 지역 980여 학교에서 추천 받아 저소득 및 일반 가정 청소년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과 교감하며 1년을 함께할 다양한 직업군의 성인 멘토는 80여 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삼성이 탐방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예비 멘티 및 멘토들은 3월 31일까지 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동행은 "1년 후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해외 문화유산 탐방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유적지를 탐방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고, 멘토와 고민을 나누며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2)737-9595 김지원 기자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접점 논한다

현대물리학과 불교는 어떻게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오는 3월 19일 오후 7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서 3월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양장 얽힘과 사물의 실재성-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현대물리학과 불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대상 도서는 김성구 교수의 저서인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이다. 강사인 김성구 교수는 서울대 문리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충남대 교수,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dharin.cafe)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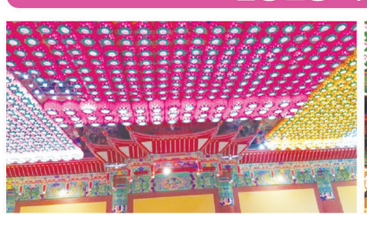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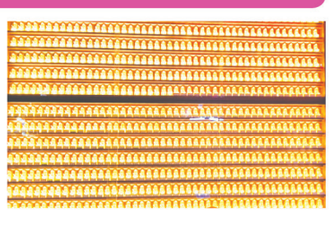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